02□□□_□□□□□□15□ 13. 8. 13. □□ 4:23 Page 29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5호 2013.06. pp.29~62

매체 간 특성에 따른 변용 실제 연구

—소설 『셜록 홈즈』와 만화 『셜록』을 중심으로

An Actual Study on Transform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edia

김미나(단국대 박사수료)

차 례

1. 서론
2. 원작의 반영 양상
1) 원작의 수용 양상
2) 원작의 변용 양상
3. 만화의 매체적 특성으로 인한 특징
1) 시점의 변화
2) 시대상의 반영
3) 회상의 현재화
4. 변용으로 인해 발생한 장단점
1) 높아진 친근감과 가독성
2) 문학성의 실추
5. 결론

1. 서론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다양한 매체와 작품이 늘어가고 있다. 그 중 소설이나 만화가 드라마와 영화 같은 영상매체로 전환되는 사례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시나리오와 작가가 부족한 현상과 참신한 스토리가 부족한 현실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이미 한차례 검증받은 이야기를 재창작하는 경우이기에 실패 확률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설이 만화로 변용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소설이 문학성과 작품성을 내세워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동안, 만화는 저급문화라는 인식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만화를 보는 시각이 다양화되고 독자적인 미학의 한국만화가 늘어나면서 만화의 위치

02□□□_□□□□□□15□ 13. 8. 13. □□ 4:23 Page 30

에 대해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함께 증가했다. 관련 변화는 발전해 최근에는 만화의 예술론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학작품은 기본적으로 문학성을 내포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문학성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내리기 어렵다. 문학 작품은 등단작가에 의해 창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종 신춘문예와 문학상 등에 당선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단작을 심사하는 기준은 문단의 몇몇 중견 작가 등의 안목에만 의지해 판단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다른 매체에 담겨진 문학성이 논의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중성은 문학성과는 달리 구체적인 판매부수, 선호도 등에 의해 가시적으로 판단된다. 문학작품 즉 소설은 문학성에 의해 좌우되지만 만화는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다. 노시훈은 관련 장르를 의사(擬似)문학[1)]이라 따로 분류하여 정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로는 활발하게 통용되지 못한 채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설과 만화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보이나 2000년대 들어서 문학작품을 만화화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학작품이 만화화[2)]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관련내용을 청소년을 비롯

1) 의사문학은 문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그것과 닮은 장르를 통칭한다. 대중적 소설이나 출판물은 물론 시나리오나 사진소설 등이 모두 해당하는데, 명확한 분류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통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유사한 단어로 '주변문학', '대중문학' 등이 있다. (노시훈, 「문학작품의 만화 각색을 통해서 본 문학과 만화의 상호매체성」, 《프랑스문화예술연구》, 프랑스문화예술학회, 제29집, 2009.8, 99~100쪽 참조.)

2) 문학작품을 만화화 하는 경향은 2000년대 들어 매우 빈번해졌다. 때문에 모든 작품을 나열할 수는 없고, 전집 형태의 시리즈물 일부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종류의 학습만화 전집류는 기획 단계부터 규모가 있는 출판사를 통해 제작되며, 그 양 또한 상당하다. 하지만 개인의 이름을 걸고 한 명의 만화가에 의해 창작되는 경우는 그 수가 매우 적다.

출판사	수록작품	발간년도	특징
휴이넘	공지영, 김원일 등	2008	10명의 작가를 구성으로 한 70권의 전집
SEN	「벙어리 삼룡이」 등	2005	특선집 형태의 전집으로 총 20권
아이템북스	「상록수」, 「날개」 등	2008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작품으로 구성, 총 10권
이가서	「유년의 뜰」, 「날개」 등	2004	이문열의 작품 등 비교적 최근작까지 포함. 총 31권
시공사	「붉은산」, 「역마」 등	2002	만화가 김동화가 저자로 기획된 선집, 총 7권

언급된 작품들은 국내 작품을 원작으로 한 것들로, 이 외에도 외국의 문학작품들을 만화 전집형태로 기획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외국에서 이미 만화로 제작된 작품들을 수입해 번역하는 경우나, 일본 등을 거친 작품들을 재번역해 출간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02□□□_□□□□□□15□ 13. 8. 13. □□ 4:23 Page 31

한 학생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만화의 기본적인 특성인 대중성을 기반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나은 학습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학습만화의 경우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선별해 단편소설이나, 장편소설을 한 권 분량으로 제한을 둔 채 만화로 그려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단편소설 작품들은 대부분 원작의 줄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편소설이 "복잡한 스토리와 플롯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형을 가할 이유가 없고, 원작이 갖는 무게"[3]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형을 가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세계문학전집에나 실릴 법한 문학작품이 만화로 전이된 경우를 살펴보면 원작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본 스토리를 충실히 그려내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충실한 각색을 시도한 경우, 기존의 스토리를 반복하거나 원작 훼손 논란으로 마무리될 뿐 새로운 논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는 논술을 대비한다거나 교육한다는 등의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하는 특징으로 일반화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만화의 기본적인 특성은 대중성과 재미를 추구한다는데 있다. 때문에 소설 원작이 존재하더라도 만화의 특성에 맞춰 변화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 매체 간의 특성을 분명하게 살펴보고, 전이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만화는 여타 매체보다 소설과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사성을 내포하게 됨을 의미한다. 소설은 일정한 스토리와 서사구조를 통해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역사만큼이나 공고한 체계성을 확립하고 있기도 하다. 만화는 스토리와 구조 등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글을 활용한 매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만화는 그림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다르다.

3) 조희권, 「소설의 만화 전환 시 나타나는 서사 변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제17호, 2007.6, 276쪽.

02□□□_□□□□□□15□ 13. 8. 13. □□ 4:23 Page 32

두 매체는 '책'이라는 특정한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읽는 방식 또한 유사할 수밖에 없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며 휴대가 편리하다는 점, 원하는 부분을 언제든 재차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공통점이다. 가독성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만화가 그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소설보다 만화가 쉽게 읽히는 것으로 본다.

이렇듯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에 매체의 변용이 일어나는 일은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사점만큼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 『셜록 홈즈』[4] 와 만화 『셜록』[5]을 기본텍스트로 삼아 두 매체의 변용양상에 주목했다. 이를 기반으로 매체 변용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두 매체의 특징을 기반으로 보다 나은 각색과 변용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원작의 반영 양상

원작을 변용할 때에는 정도의 차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는 매체의 성격 차이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원작을 통해 각색에 임하는 작가의 해석의 차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원작을 각색하는 작가는 원작을 통해 각색

4) 『셜록 홈즈(Sherlock Holmes)』는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소설로 네 편의 장편과 60여 편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다. 코난 도일은 1887년 발간된 『주홍색 연구』를 시작으로 1927년까지 꾸준히 셜록 홈즈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후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까지도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로 패러디, 재창작되고 있다. 관련 작품은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황금가지에서 출간된 『셜록 홈즈 전집』(백영미 역)을 기본 텍스트로 한다.

5) 만화가 권교정의 『셜록』은 2010년 4월부터 만화잡지 《파티》에 연재된 작품으로 2011년 7월 이후로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2011년 1월 학산문화사에서 단행본 1권이 발매되었으며, 현재 2권까지 발행된 상태이다. 본고에서 인용된 텍스트는 단행본을 기준으로 한다. 권교정은 현재 투병 중이며, 향후 작품 활동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셜록』이 완결된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이 논의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매체 간 전이 문제를 논할 특징적인 사례들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논의의 대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연재 재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음을 밝힌다.

02□□□_□□□□□□15□ 13. 8. 13. □□ 4:23 Page 33

의 정도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셜록』의 경우는 소설 원작의 기본적인 캐릭터와 스토리 혹은 대사를 대부분 그대로 차용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변용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만화의 특성과 작가의 재해석에 인한 것이다.

1) 원작의 수용 양상

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6]는 탐정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셜록 홈즈'를 탄생케 한 작품이다. 또한 함께하는 동반자인 왓슨 박사를 등장시켜 탐정물에 등장하는 2인조 주인공의 전형적인 틀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는 작품의 대중성과 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만화 『셜록』에서는 두 사람은 물론 다양한 등장인물을 서술된 형태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원작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익히 알려져 있는 캐릭터의 강한 성격 또한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캐릭터 묘사	
소설 『셜록 홈즈』	만화 『셜록』
① "그는 희고 세련된 얼굴, 날선 콧날,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가에는 어떤 노여움 같은 것이 어려 있고 날 때부터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의 태도가 느껴졌다. 동작은 활발했지만 등이 약간 굽은 데다가 걸을 때마다 무릎이 조금씩 구부러지는 탓에 전체적으로 겉늙은 인상을 주었다. 챙 끝이 말려 올라간 모자를 벗고 품위 있게 인사할 때 보니 머리카락도 희끗거렸고 정수리 부분은 머리숱이 드문드문했다. 의상에 관해서도 높은 칼라에 검정색 프록코트, 흰 조끼, 노란 장갑, 에나멜 가죽 구두와 옅은 색깔의 각반을 세심하게 조화시킨 품이 멋쟁이로 손색없었다."[7]	

6) 『셜록 홈즈』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은 1887년에 발표한 『주홍색 연구』이다. 이후 『네 사람의 서명』, 『바스커빌 가문의 개』 등의 장편소설과 여러 단편소설들이 동일한 시리즈물에 해당한다. 본고가 대상으로 한 황금가지 출판본의 경우에는 『주홍색 연구』를 시작으로 총 아홉 권의 전집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7) 아서 코난 도일, 「귀족 독신남」, 『셜록홈즈의 모험』, 황금가지, 2002, 346~347쪽.

02□□□_□□□□□□15□ 13. 8. 13. □□ 4:23 Page 34

② "형사는 선원용 짧은 재킷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서 영락없이 뱃사람처럼 보였다."[8]	
③ "1미터 80센티미터를 넘을 듯한 키에 떨 벌어진 가슴, 헤라클레스의 팔다리. 옷차림은 화려하다 못해 영국적 기준에서는 악취미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였다. 더블 버튼 상의의 소매와 앞자락에는 폭넓은 아스트라칸 띠가 대어져 있었고, 두 어깨를 감싼 군청색 망토는 목덜미에서 반짝거리는 녹주석 브로치로 고정되어 있었다. 장딴지 중간쯤까지 올라오는 부츠는 윗부분에 윤기 흐르는 갈색 털이 대어져 외모 전체에서 풍기는 주체 못할 부유한 인상을 더해 주었다. 손님은 챙이 넓은 모자를 손에 들고 검은 복면을 하고 있었다. 복면은 이마와 눈을 덮고 광대뼈까지 가릴 만큼 큰 것이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손에 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방에 들어오는 순간 막 복면을 쓴 것이 분명했다. 두껍고 윤곽이 뚜렷한 입술과, 단호함이 지나쳐 고집스러움이 엿보이는 길쯤하고 각진 턱은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인상을 풍겼다."[9]	
④ "지극히 침착한 얼굴의 그녀는 금발머리의 숙녀로서, 작고 날렵한 몸매에 장갑을 끼고 있었고, 옷차림에는 나무랄 데 없는 취향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의상이 단순하고 소박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숙녀의 드레스는 회색빛이 도는 베이지색이었는데 끝단 장식도 술 장식도 없었다. 머리에는 드레스와 같은 색깔의 앙증맞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 한쪽에 하얀 깃털이 몇 개 꽂혀 있었다.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표정이 부드럽고 상냥했으며 커다란 푸른 눈동자에는 풍부한 감정과 정신적 깊이가 드러나 있었다."[10]	

〈캐릭터의 변용 양상〉

8) 위의 책, 356쪽.
9) 아서 코난 도일, 「보헤미아 왕실 스캔들」, 위의 책, 17~18쪽.
10) 아서 코난 도일, 『네 사람의 서명』, 황금가지, 2002, 21쪽.

02□□□_□□□□□□15□ 13. 8. 13. □□ 4:23 Page 35

위의 표는 원작 속에 드러나 있는 캐릭터의 모습이 『셜록』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났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①은 「귀족 독신남」의 사건 의뢰자인 세인트사이먼이 등장할 때 모습이다. 원작에서는 그를 딱딱하고 전형적인 귀족으로 설명했다. 『셜록』에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수용하여 그의 얼굴에서 꽉 다문 입술과 내리깐듯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이는 원작에 나타난 설명에 부합하다. ②는 같은 사건에 등장한 레스트레이드를 표현한 것이다. 만화 속 그의 복장은 원작의 설명대로 짧은 재킷에 스카프를 한 선원복장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③은 「보헤미아 왕실 스캔들」의 사건 의뢰자인 보헤미아의 왕으로 그의 복장은 원작에서 설명한 그대로 본뜬 것이다. 특히 복면에 대한 묘사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 전체를 덮는 복면이 아닌, 당시 시대에 사용하던 복면의 모습을 그대로 되살린 것이다. 왕의 모습은 시드니 파젯의 삽화에도 유사한 형태로 그려져 있다. ④는 왓슨의 아내인 메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 때 메리에 관한 묘사는 『네 사람의 서명』에 실려져 있으며, 의상의 세밀한 부분까지 그대로 표현되었다

성격 및 행동 묘사	
소설 『셜록 홈즈』	만화 『셜록』
⑤ “플로라는 사랑스러운 여자였지만 신경질적인 데다가 나에게 지나치게 집착했소이다.”[11]	

11) 아서 코난 도일, 「귀족 독신남」, 앞의 책, 353쪽.

02□□□_□□□□□□15□ 13. 8. 13. □□ 4:23 Page 36

⑥ "아내는 영국에서 이른바 말괄량이라고 일컫는 타입이오. 강한 성격에 거칠고 자유분방한 기질이 어떤 전통에 의해서도 길든 적이 없는 사람이지. 말하자면 충동적인 성격에 활화산 같은 열정의 소유자라오. 게다가 결단성에 과감한 실행력까지 겸비하고 있소이다."[12]	
⑦ "셜록 홈즈는 의자에 몸을 묻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13]	
⑧ "손님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온몸에 동요의 빛이 역력했다."[14]	

〈성격 및 행동의 변용〉

제시된 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의 변용을 나타낸 것이다. ⑤는 「귀족 독신남」에 등장한 플로라 밀러를 표현한 것으로, 원작에서 그녀에 대한 묘사는 세인트사이먼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형태이다. 그는 그녀를 신경질적인 것으로 묘사했는데, 『셜록』에서는 홈즈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12) 위의 책, 349쪽.
13) 위의 책, 357쪽.
14) 아서 코난 도일, 「보헤미아 왕실 스캔들」, 위의 책, 20쪽.

02□□□_□□□□□□15□ 13. 8. 13. □□ 4:23 Page 37

이와 같은 성격을 드러낸다. ⑥은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사라진 신부를 그려낸 것이다. 이 때 그녀에 관한 묘사는 '말괄량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되며, 『셜록』에서는 이를 얼굴의 주근깨로 간단하게 표현했다. ⑦은 레스트레이드와 대화중에 비웃는 듯 실소를 터뜨리는 홈즈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 전 장면에서는 "풋"하고 웃음을 터트리는 등 그의 행동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아쉬운 것은 만화로 박수치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지 해당 설명은 모두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장면 또한 그에 속한다. ⑧은 보헤미아 왕의 행동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방 안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만화의 기법 중에 하나인 동작선을 쓰면서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또한 그의 곤란해 하는 표정 또한 원작과 유사하다.

만화는 "시각 기호들의 집합을 연결시키면서 소설 문장을 분절하고 재구성"[15]한다. 하지만 『셜록』의 경우에는 원작의 대사를 대부분 그대로 차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발생하는 차이는 만화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말풍선의 크기와 제한된 글자수, 쉽고 재미있는 것을 요구하는 독자층의 연령과 성격 등을 고려해 대사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쉽게 풀이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원작	만화	만화 속 대사
「도란 양이 옆에 있으면 나는 즐거웠고 그녀도 나와 함께 있는 걸 기뻐하는 것 같았소.」 「도란 양의 부친이 갑부라고 들었습니다만?」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재산을 모으셨습니까?」		"그녀와 교제하는 게 즐거웠어요. 내가 그렇다는 걸 아마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숨길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부친이 큰 부자라더군요."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부자라는 소릴 듣지요." "그분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15) 이수진, 「소설에서 만화로 : 프랑스에 소개된 『짜장면』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한국프랑스학회, 제63집, 2008.8, 356쪽.

02□□□_□□□□□□15□ 13. 8. 13. □□ 4:23 Page 38

「맙소사, 대관절 무엇 때문에?」 「세인트사이먼 부인의 시신을 건지기 위해서였소.」 「트라팔가 광장의 분수대 바닥은 어떻게 하고요?」 「뭐라고?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시신을 찾아낼 가능성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으니 말입니다.」[16]		"저런~ 아니, 그런데 거긴 왜요?" "레이디 세인트사이먼의 시체를 찾으려구요." "트라팔가 광장 분수대 밑바닥은 훑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무슨?" "시체를 발견할 가능성은 마찬가지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원작, 만화, 만화 속 대사의 비교〉

위의 표 〈원작, 만화, 만화 속 대사의 비교〉[17]는 원작 『셜록 홈즈』에서 주어지는 대사와 공통된 부분을 만화 『셜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두 장면은 어투에 약간에 수정이 가해졌을 뿐, 기본적인 내용이나 구성이 모두 같다. 어투의 경우는 만화의 기본 설정 자체를 홈즈와 왓슨이 서로 반말을 쓰는 것으로 재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제시한 상황은 두 장면에 불과하지만, 『셜록』은 사건에 관련한 원작의 대사를 대부분 그대로 차용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원작의 판본이 다르다거나, 번역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건에 대한 설명 등 작가의 의도에 의해 새롭게 창작된 부분을 제외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외의 부분은 원작의 대사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칸 구성별로 나누거나, 길이를 조절하는데서 그친다. 물론 원작을 충실히 표현해내는 것도 좋지만 만화는 소설과 독자의 연령층이나 성비율 등에서 분명 다른 점이 존재한다. 문학작품은 글을 통해 사건을 연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창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16) 아서 코난 도일, 「귀족 독신남」, 357쪽.
17) 원작소설은 아서 코난 도일의 「귀족 독신남」 중 348쪽(위), 357쪽(아래)에서, 만화는 권교정의 『셜록』 1권의 60쪽(위), 107쪽(아래)를 출처로 발췌한 내용이다.

02□□□_□□□□□□15□ 13. 8. 13. □□ 4:23 Page 39

것이다. 하지만 만화의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문학보다는 이해가 쉽고, 눈에 띄는 그림이나 홍보 등에 의해 접근성도 뛰어나다. 따라서 두 매체는 독자층부터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추리소설과 순정만화는 다른 장르보다 겹치는 독자층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셜록』이 『셜록 홈즈』 시리즈를 수정 없이 차용한 것은 독자층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고, 변용과 재창작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패러디(parody)와 패스티시(pactiche)[18]를 구분하는 기준은 목적성에 있다. 패러디는 원작과 유사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지닌 채 시도되는 것이다. 표절과 패러디, 패스티시, 키치에 대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패러디는 풍자와 웃음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패스티시는 뚜렷한 목적 없이 원작을 차용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패러디가 갖는 특징을 배제, 복제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둔다. 키치(kitsch)는 조악한 복제물까지 통칭하고 있으며, 스스로 예술이기를 포기한 장르를 의미하기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셜록』의 경우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셜록』의 목적의식은 인기를 끌고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의도가 작품의 전체가 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오로지 재미 때문에 원작을 기용해 변형을 가하는 것이 패러디와 패스티시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는 작품이 완결이 된 후에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18) 패스티시는 패러디와 관련이 있는 유사한 개념 중 하나이지만 그 뜻은 반대되는 개념을 갖는다. "패러디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원작을 인용하여 비판"하지만 "패스티쉬는 원작을 거의 전용하여 형식과 구성요소에서 철저한 유사성을 주장한다." (문민기, 「동 · 서양 영상콘텐츠에 적용된 패러디 비교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7.12, 70쪽.)

02□□□_□□□□□□15□ 13. 8. 13. □□ 4:23 Page 40

2) 원작의 변용 양상

『셜록』은 순정만화[19]이다. 실제 작품이 연재중인《파티》는 순정만화를 전문적으로 연재하는 잡지이다. 그림형식도 순정만화의 일반적인 틀[20]에 부합한다. 때문에 캐릭터를 미화[21]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원작에 그려진 홈즈와 왓슨에 대한 묘사는 기본에 충실하되 최대한 순정만화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	소설 삽화[22]	만화
"키가 1미터 80센티미터가 넘었는데 너무나 깡말라서 훨씬 더 커보였다. 눈은 내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무기력 상태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찌르는 듯이 날카로웠다. 살집이 없는 매부리코는 전체적으로 기민하고 단호한 인상을 주었다. 각지고 돌출한 턱 또한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23]		

〈매체 간 캐릭터 변화〉

19) 순정만화에 대한 개념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감성만화", "여성만화"라고 칭하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기원조차 불분명한 "순정"이라는 표현은 이미 일반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꾸는 것에 대한 성과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순정만화는 여성이 그린, 여성을 그린, 여성처럼 감성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의미를 모두 내포한 채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내용은 정보영, 「한국 여성만화의 발전과제 고찰」,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승화, 「순정만화의 젠더 전복 모티브에 나타난 엔드로지니 환상과 젠더화의 불만」, 《페미니즘연구》, 제8권 1호, 2008. ; 김혜주, 「한국 순정만화 분석」, 《현대미술사연구》, 제24집, 현대미술사학회, 2008. 등에서 참조했다. 이외에도 순정만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순정"이라는 용어의 부적절함을 대부분 지적하고 있다.)

20) 만화의 그림형식은 일반적으로 만화체, 극화체, 순정체로 나뉜다. 순정체는 동아시아권 만화 전통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그림형식으로 9~12등신의 인체비로 표현되며 유럽풍의 배경과 인물들이 묘사되는 소녀 대상의 작품에 주로 활용된다. (박석환, 「소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화의 득과 실」,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제16호, 2006.12, 90쪽.)

21) 여성들은 순정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특성화에 대해 큰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나, 남성 독자들의 경우에는 과장되어 있고 남성적인 소년만화의 형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내용의 연구(곽선영, 「여성장르로서의 순정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5호, 2001, p.262. 참조)가 있었다. 이때의 '미화'는 여성적인 취향에 부합하도록 변화되는 형태를 뜻하며, 서양인에 대한 동경과 여성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년만화에서 남성의 근육 등이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부각시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과 유사한

02□□□_□□□□□□15□ 13. 8. 13. □□ 4:23 Page 41

원작에 나타나는 홈즈의 특징적인 모습은 깡마르고 독특한 두상을 가진데다 매부리코와 돌출된 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 속 삽화는 이러한 특징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키는 크지만 그리 여위지 않았고, 코난 도일이 묘사한 것과 그리 닮지 않았다"는 평[24]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셜록』의 경우에는 삽화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징마저도 제대로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홈즈의 두상과 벗겨진 이마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것과 왓슨의 콧수염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이 대부분인 순정만화의 여성 독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작가의 전략이다. 권교정은 관련 부분을 작품 속에 창작해 넣은 왓슨의 콧수염 일화[25]를 통해 밝힌다.

또한 캐릭터의 관계에 있어서 작가의 해석에 근거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전에 있어왔던 타 매체로의 전의들에서 『셜록 홈즈』의 홈즈와 왓슨의 관계를 동성애로 정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이는 원작을 과장되게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영화 〈셜록 홈즈〉에도 이 같은 인물 설정이 등장[26]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사랑이야기가 대부분인 순정만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캐릭터간의 관계(흔히 러브라인이라 불린다)를 위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동성애 코드의 삽입은 원작을 토대로 한 변화이지만 두 인물의 관계만을 위한 서사의 재구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앞의 글, 247~248쪽 참조.) 이외에도 순정만화연구와 그림체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 순정만화의 특징을 유사한 형태로 단정 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시드니 파젯(sidney Paget)은 『셜록 홈즈』시리즈의 여러 명의 삽화가들 중 한 명이자 대표적 인물이다. 총 서른 여덟 작품에 357편의 삽화를 그렸으며, 작품 속 캐릭터의 특징을 전형적인 이미지로 창조해냈다. 그의 삽화에는 소설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선별되어 그려졌다. 이로 인해 홈즈를 거론할 때면 연상되는 망토와 모자, 파이프 등이 탐정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기도 하였다.

23) 아서 코난 도일, 『주홍색 연구』, 25쪽.

24) 아서 코난 도일, 레슬리 S. 클링거 주석, 『주석 달린 셜록 홈즈 I 』, 북폴리오, 2006, 34쪽.

25) 콧수염을 밀어버린 것에 대해 왓슨은 면도를 하고 나니 메리가 훨씬 좋아하더라고, 홈즈는 많은 여성들이 속마음으로는 수염을 말끔하게 밀어버린 쪽을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권교정, 『셜록1』, 84쪽.)

26) 영화잡지를 발행하는 사이트인 무비위크의 기사에는 관련한 영화 소개에 "환상의 콤비 홈즈와 왓슨의 러브 라인(?)도 더 격해질 테니 기대해도 좋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지용진, 「셜록홈즈 : 그림자 게임 셜록홈즈는 액션이다」, 무비위크, 2011.08.01.) 비단 이 기사뿐 아니라 동일한 시기의 다른 기사들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02□□□_□□□□□□15□ 13. 8. 13. □□ 4:23 Page 42

성이 발생하게 했다.

〈홈즈와 왓슨의 동성애적 요소가 포함된 장면〉

소설『셜록 홈즈』에서 홈즈와 왓슨은 조력자와 동거인의 관계를 유지한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않더라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홈즈는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 인물로 등장한다. 하지만『셜록』에서의 홈즈는 왓슨의 말 한마디에 감정변화를 크게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때문에 고민하거나 생각에 잠긴 듯한 홈즈의 단독컷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왓슨의 결혼에 대한 대화나 콧수염 일화 등을 새롭게 창작해 삽입함으로써 동성애적 요소를 보다 부각시켰다. 이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서사들은 사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어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해 원작훼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만화는 소설처럼 철저하게 작가에만 의지한 채 창작된다. 때문에 이는 만화가 권교정의 재해석일 뿐이다.

『셜록』은 원작의 발표순서나 사건의 순서를 근거하지 않은 채, 새로운 기준점을 그 시작으로 선정해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때문에 관련 인물들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되고, 관련한 일화들이 다른 작품에서 차용되어 등장하게 된다.『셜록』1권에 등장한 왓슨의 아내와 관련한 일화

02□□□_□□□□□□15□ 13. 8. 13. □□ 4:23 Page 43

는 『네 사람의 서명』이라는 장편작품에 등장한다. 또한 홈즈와 왓슨의 첫 만남에 대한 일화는 『주홍색 연구』에 나타나 있다. 실제 이 작품은 아서 코난 도일이 발표한 『셜록 홈즈』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단순히 사건만을 반복해서 해결하는 기존 원작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토리를 추가하거나 『셜록 홈즈』 시리즈 내 다른 작품에서 언급된 내용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만화 단행본의 첫 번째 사건인 「귀족 독신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작의 서사 진행과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소설의 서사구성	만화의 서사구성
	① 플로라 밀러 난동
홈즈의 귀가	
세인트사이먼 방문	
사건 회상	
	② 왓슨의 콧수염 관련 일화
	③ 경찰서 방문
레스트레이드 경감 방문	④경찰서에서 레스트레이드를 만남
요리 준비	
사건해결	
마무리	

〈「귀족 독신남」의 서사 진행과 변화 양상〉

이 때 변용된 부분과 새롭게 창작되어 삽입된 부분은 작가의 재해석 의지에 따라 새로운 스토리를 구축하고,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은 원작에서는 세인트 사이먼의 대사를 통해 서술된 부분[27]이나, 『셜록』에서는 현재적 시점으로 본격적인 사건이 등장하기 전

27) 원작에서는 관련 내용이 신문기사로 등장한다. "그런데 신원 미상의 한 여인이 잠시 불미스러운 소동을 벌였는데, 그 여인은 자신이 세이트사이먼 경의 약혼자라고 주장하며 일행의 뒤를 쫓아 기세등등하게 집 안으로 쳐들어가려고 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집사와 하인에게 떠밀려 쫓겨났다."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후 플로라 밀러가 체포되었다는 언급이 짧게 등장한다. (아서 코난 도일, 「귀족 독신남」, 344~345쪽.)

02□□□_□□□□□□15□ 13. 8. 13. □□ 4:23 Page 44

에 프롤로그 형식으로 그려진다. 이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자아낸다. 또한 ③의 경우에는 원작에는 없는 상황이 등장한 것으로, 원작에는 플로라 밀러가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것으로 간단하게 언급만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면회를 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이 장면은 앞선 장면과 연결되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신분차이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④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의 증거품들을 모조리 들고 홈즈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상황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장소를 변경해 경찰서에서의 만남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감자를 면회한 이후에 얻은 수확을 사건해결 흐름의 끊김 없이 반영해 진행하기 위한 설정이기도 하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변형이 가해진다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문제는 작가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창작된 ②에 나타난다. 왓슨의 사라진 콧수염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등장인물의 대사를 빌린 작가의 설명이 있었다. 하지만 관련 상황은 홈즈가 왓슨의 콧수염을 몰래 밀어버린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홈즈의 반응은 왓슨의 아내에게 질투를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같은 설정은 사건 도중에 삽입되어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관련 부분은 이후에 등장할 왓슨의 결혼 일화와 연관성이 있지만, 꼭 해당 부분에 삽입되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셜록』에서는 시종일관 진지한 원작과는 달리 중간에 개그컷을 삽입한다거나 캐릭터를 희화화시켜 웃음을 자아낸다. 이는 사건해결만 진행되었을 경우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상황을 유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해결이 주가 되는 장면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나열과 정보의 전달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끊지 않는 선에서 유머를 삽입하는 것은 작품에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 만화와 소설은 주 독자층이 다르다. 때문에 이와 같은 설정은 만화의 독자들이 작품 속 캐릭터들에게 친

02□□□_□□□□□□15□ 13. 8. 13. □□ 4:23 Page 45

근감을 갖게 하고, 작품에 재미를 느끼게 한다.

3. 만화의 매체적 특성으로 인한 특징

1) 시점의 변화

소설과 만화는 시점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소설은 글만을 매개로 다양한 시점을 통해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때문에 내면고백까지도 가능한 1인칭도, 모든 것을 알고 설명하는 3인칭 시점도 가능하다. 이를 혼용하여 복합적인 시점까지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만화는 읽는 것이 아닌, 보는 것이 주가 되는 매체이다. 독자들은 그림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 글을 통해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려내는 것과 직접적으로 그려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그 차이가 존재한다. "소설이 아닌 만화에서는 따로 '이야기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간혹 주인공의 독백으로 전개되는 장면조차도 실은 '보여주는 자'의 영역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28] 때문에 만화는 영상매체의 특징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고정된 시점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풍부해지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소설 『셜록 홈즈』는 홈즈와 함께하는 왓슨박사가 홈즈의 활약을 알리는 것을 목적[29]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설정 하에 구성된 작품이다. 때문에 홈즈가 직접 기술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두 편의 작품[30]을 제외하고는 모두 왓슨의 시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만화 『셜록』은 원작과 다

28) 조희권, 앞의 글, 283쪽.
29) 홈즈는 자신의 활약을 경찰에게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왓슨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왓슨은 자신의 일기에 적어놓은 사건기록을 토대로 한 출간을 결심한다. 왓슨이 원한 것은 홈즈의 활약이 널리 인정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주홍색 연구』에 관련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이후 대부분의 작품은 왓슨이 기록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30) 「사자의 갈기」와 「피부가 하얘진 병사」는 셜록홈즈가 직접 기술한 형식이다.

02□□□_□□□□□□15□ 13. 8. 13. □□ 4:23 Page 46

른 시점으로 그려지고 있다.

원작은 분명하게 왓슨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이외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때문에 그가 없는 동안 홈즈가 한 일이 그려진다거나 할 수 없다.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홈즈의 입과 왓슨의 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만화는 소설과는 명확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자가 보는 시선을 우선으로 해 작품이 창작되기 때문에 시점에 관련해 일정부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원작과 동일한 시점을 유지한다면, 만화에서는 왓슨이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시점 설정에 대해 작가는 왓슨의 대사를 통해 그 특성을 드러낸다.

〈만화만의 시점을 보여주는 장면〉

세인트사이먼이 집으로 방문해 사건을 의뢰하고, 관련한 설명을 하는 장면 내내 왓슨은 한 컷도 등장하지 않았다. 실제 왓슨의 대사처럼 20여 페이지는 홈즈와 세인트사이먼의 대화와 사건의 재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독자가 볼 수 있는 장면은 작가가 설정한 고정적인 시선, 즉 카메라의 앵글과도 같은 시점에 의한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시점이 대

02□□□_□□□□□□15□ 13. 8. 13. □□ 4:23 Page 47

체되어 고정된 형태로 보여지는 현상은 만화와 영화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은 독자가 상상하는 대로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데 반해 만화와 영화는 누군가의 눈을 거쳐야만 한다. 영화의 경우에는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야만 하고, 만화의 경우에는 작가의 상상을 거친다. 두 매체의 차이는 "영화는 한 지점의 시점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반면, 만화는 제각기 다른 시점의 장면들을 다각도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31]는 것이다. 소설의 경우는 오직 글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내내 등장하지 않더라도 같은 장소에 함께하고 있다는 언질이 있는 한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만화는 카메라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컷 분할이 가능하다. 클로즈업과 롱샷 등이 원하는 지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전체적인 배경 등을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 같은 『셜록』의 시점은 제3자의 눈, 독자의 눈이 된다. 뿐만 아니라 3인칭 시점과 전지적 시점을 오가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모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등장인물들의 속마음까지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심리묘사의 경우에 소설은 시점에 따라 제한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만화는 말풍선 밖 공간을 심리묘사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면을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만화의 이와 같은 특징을 통해 원작에서 오직 왓슨의 심리만을 알 수 있었던 독자들은 『셜록』을 통해 다양한 인물의 심리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2) 시대상의 반영

소설은 특정하게 대상이 되는 사물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방법으로 주

31) 이찬후, 「만화표현의 영상적 요소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6쪽.

02□□□_□□□□□□15□ 13. 8. 13. □□ 4:23 Page 48

변을 그려낸다. 하지만 만화는 작가가 원치 않는 부분까지도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각이 우선시 되는 만화의 특성에 인한 것이다. 때문에 작품을 창작할 때 철저한 고증이 중요시된다. 특히 시대와 장소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보다 높아진다. 만화는 대화를 할 때에도 장소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구도와 상황을 설정해야만 한다. 이 때 분명하지 않은 사물이나 장소 등이 등장하게 되면 작품의 몰입도가 떨어지게 된다. 소설은 허구이지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만화 또한 소설처럼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그려낸다. 때문에 두 매체 모두 철저한 준비와 취재를 거친 후에야 사실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독자는 있을 법한 이야기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며, 사실성에 기인한 설정은 작품의 완성도에도 기여하게 된다.

『셜록』의 경우는 『셜록 홈즈』의 시대적 설정을 그대로 따라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다. 때문에 사소한 소품 하나까지도 현대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만화는 등장인물들의 복식은 물론 사소한 생활습관까지도 시각적으로 직접 마주하기 때문에 구체화된다. 이로 인해 소설에서는 상상에 그쳤던 부분까지 모두 설정해두어야만 하는 것이다. 『셜록』의 작가는 작가후기를 통해 시대적 배경과 사물 등을 묘사하는데 고충[32]을 토로하기도 했다. 모자나 옷, 파이프나 마차는 물론 작은 악세사리 하나까지도 정확한 고증을 통해야만 제대로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만화가들이 관련 부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웹툰 작가인 강풀의 경우에는 자신의 작품에 쓰인 배경 사진을 직접 홈페이지 등에 개재해 창작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소설은 특정한 사물과 장소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만화의 경우에는 작가가 원치 않더라도 배경까지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이 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모든

32) 작가는 단행본 1권 뒷부분에 실린 후기를 통해 '키, 가구, 의상'을 그리는데 고충이 컸음을, 2권에 실린 작가후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마차'를 그리는 것이 힘들어 원작의 삽화가인 시드니 파젯의 작품을 참고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셜록』 1권 179~183쪽, 2권 166~171쪽 참조.)

02□□□_□□□□□□15□ 13. 8. 13. □□ 4:23 Page 49

만화가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셜록』은 고증의 부분에 있어 완벽을 기하지는 못했다. 작품이 진행되면서 시대를 반영하는 요소들의 등장이 줄어들고, 그만큼 허술한 장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셜록』은 이야기의 대부분이 홈즈와 왓슨이 살고 있는 집에서 진행된다. 때문에 벽지나 그 밖의 사물들에 대한 기본 설정이 분명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기본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장소들 또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찾아간 경찰서나 감옥, 길거리를 살펴보면 그 세밀함이 분명하게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을 배경으로 한 대화 장면에서조차 벽지나 가구를 제대로 그려 넣지 않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리고 대화형식이 많은 작품의 특성상 자주 등장하는 인물의 뒷배경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공간인 채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물론 반드시 배경이 채워져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셜록』의 경우, 작품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후반부로 갈수록 그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날 정도이기에 문제가 된다.

등장인물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라 해도 만화는 모든 부분이 당연하게 시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의 반복은 작가가 철저한 고증을 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만화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시대를 반영한다. 때문에 정확하고 세밀한 표현만이 작품의 현실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회상의 현재화

만화는 "표현 불가능한 것이 없는 가장 탁월한 서사 형식"[33]이다. 하지만 원작의 등장인물의 독백이나 심리묘사 등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지니

33) 조희권, 앞의 글, 282쪽.

02□□□_□□□□□□15□ 13. 8. 13. □□ 4:23 Page 50

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몇 십 페이지의 독백만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 만화[34]로 변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독백은 한 컷으로만 표현되었을 뿐 관련한 많은 내용과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못하였다. 원작에 있어 해당 부분은 화자의 심리갈등을 세밀하고 탁월하게 묘사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관련부분을 생략했다는 것은 변용에 있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물의 대화나 표정변화, 행동에 의해 구성되는 그림의 특성상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은 장면을 연속으로 삽입하는 것은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끊임없이 사건을 만들어야 진행되는 만화의 특성으로 인해 등장인물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거나, 대화를 유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원작의 정적인 묘사를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보여지는 것이 우선시 된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장점이 되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제약들은 단점이 된다. 소설은 대화 장면이나 심리묘사에 치중한 내면 묘사에 긴 페이지를 할애한다 해도 독자는 이질감을 갖지 않고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만화의 경우에는 유사한 그림이 나열되는 와중에 많은 글자수가 등장하면 몰입을 저해하고, 지루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 때 오직 그림만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집중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만화는 글보다 그림이 우선시된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현상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때문에 만화의 경우, 작가의 의도에 의해 글자를 모두 배제한 삽입 컷이 강조의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원작의 홈즈는 의뢰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편지를 읽고 사건의 대부분을 해결하는 "생각하는 인간형"[35]이다. 하지만 『죄와 벌』과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을 만화로 길게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때문에 회상장면이 현재적 시점으로 그려지는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단순한 대사처리로

34) Asako Shiomi, 『죄와 벌』, 북박스, 2004.

02□□□_□□□□□□15□ 13. 8. 13. □□ 4:23 Page 51

도 무리가 없는 소설과는 달리 만화나 영상매체에서는 대사는 과거형이지만 사건은 실제로 벌어지듯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단행본에 등장하는 사건들도 현재형이 된다. 「귀족 독신남」의 경우에는 홈즈와 왓슨이 읽는 신문기사가 실제 사건의 현장인 연회장을 배경으로 그려지며, 세인트사이먼의 사건의뢰 장면에서는 사라진 신부와 만났던 과거와 결혼식 장면 등이 등장하게 된다. 「보헤미아 왕실 스캔들」의 경우에는 홈즈가 사건해결을 위해 외출했던 상황을 왓슨에게 들려주는 장면에서 실제 변장을 하고 행동을 하는 홈즈의 모습을 현재형으로 볼 수 있다.

『셜록 홈즈』은 끊임없이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해결이 되면 작품이 완결되는 특성을 지닌다. 『셜록』은 잡지에 연재되는 형식이기에 완전한 완결성을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단행본 1권은 원작인 「귀족 독신남」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1권의 후반부이며 이후는 작가의 재해석으로 새롭게 창작된 에피소드가 삽입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단행본 2권까지 이어져 있다. 두 번째 사건인 「보헤미아 왕실 스캔들」의 경우에는 2권의 중반부인 78페이지부터 시작되어 해당 권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도중에 마무리된다. 연재되는 잡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섯 회 분량이 모여 단행본을 구성하지만 이 또한 들쑥날쑥한 분량[36]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연재본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다음 사건은 16회에 이르러서야 시작된다. 『셜록 홈즈』 시리즈는 장편과 단편으로 구분되어 각각이 완결성을 갖는다. 특히

35) 원작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음과 대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방금 한 얘기는 홈즈 씨가 방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도 이해하지 못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겁니까?」/나는 말했다./「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런 일에 대한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건이 좀더 복잡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나는 꼼지락거리고 나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나에게는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특수한 지식이 많이 있고, 그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서 코난 도일, 『주홍색 연구』, 35쪽. ; 관련 내용은 만화 『셜록』의 16화에 등장하기도 한다.)

36) 『셜록』은 2010년 4월부터 잡지 《파티》에 연재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16회 분량까지 진행되었다. 이 중 단행본 2권까지의 분량은 12회 분량이다. 단행본 1권은 비교적 매회 비슷한 분량을 유지하나, 2권에 들어서는 가장 긴 회는 8회로 24페이지, 짧은 회는 7회 17페이지 분량이다.

02□□□_□□□□□□15□ 13. 8. 13. □□ 4:23 Page 52

『셜록』이 다루고 있는 두 작품의 경우는 단편이기 때문에 쉽게 결말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셜록』의 경우는 단행본에서 사건의 마무리를 볼 수 없게 된다. 이 때 연이어 다음 권이 출시되었을 경우를 위해 궁금증을 유발하여 구매욕을 상승시키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작인 단편소설과는 다른 형태임이 분명하다. 단행본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작품의 완결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변용으로 인해 발생한 장단점

1) 높아진 친근감과 가독성

『셜록』은 원작과는 달리 캐릭터를 미화시켰음은 물론, 개그 컷을 통해 등장인물들을 단순화시켜 친근감을 유발하였다. 때문에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순간에도 쉽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작을 읽는 동안 사건에 관련해 등장하는 설명들은 모든 상황과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만화는 많은 부분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기 때문에 관련한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셜록』은 원작보다 높은 친근감과 가독성을 획득했다.

또한 현대가 아닌 시대적 배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원작의 몇몇 부분과는 달리 만화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고증을 통해 입증된 몇 가지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당시의 마차나 건물, 복장 등에 대해 따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빚어내기도 한다. 독자들은 만화 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우선으로 할 뿐 그 밖의

02□□□_□□□□□□15□ 13. 8. 13. □□ 4:23 Page 53

다른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셜록』 뿐 아니라 만화 장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은 글을 읽는 동안 무수히 많은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게 하게 한다. 이는 소설의 긍정적인 측면이 된다. 때문에 이처럼 생각과 상상력을 제한하게 되는 측면은 단점이 될 수 있다. 관련한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만화의 특성으로 인해 양면성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셜록』은 이외에도 작품의 실제 배경인 19세기를 벗어나지 않은 채, 현실을 반영한 대사를 담아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현실을 반영한 대사가 반영된 장면〉

위의 장면에서는 홈즈가 왓슨에게 자료 검색을 부탁하면서 "구글의 검색엔진"을 거론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작품의 배경인 19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나 이를 보는 독자들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이처럼 뜬금없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대사는 함축

02□□□_□□□□□□15□ 13. 8. 13. □□ 4:23 Page 54

적인 표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면은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또 다시 과거형이 되기도 한다. 타자기가 최신식이던 시절이 지금은 과거로 인지되는 것과 같다. 『셜록』을 십여 년 후에 접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장면은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회상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2) 문학성의 실추

소설은 시대적 상황을 작품 속에 반영하고, 시대와 인간에 대한 고뇌와 갈등을 담아내는 장르이다. 때문에 문학성이 강조되고, 나름대로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 추리소설도 마찬가지이다. 캐서린 니커슨(Catherine Nickerson)은 19세기 추리소설을 "근대의 곤란한 문제들인 젠더의 역할과 인권, 인종적 편견이나 인종 의식의 형성, 부와 자본의 중요성과 도덕성, 사생활과 사회적 지배 사이의 대립적인 요구 등과 모두 깊숙하게 얽혀 있다"[37]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셜록 홈즈』의 경우만 살펴본다 해도 홈즈가 활동했다고 제시되어 있는 19세기 초반의 탐정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영웅적 면모를 지닌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신분을 초월한 채 오로지 사건만을 직시하는 홈즈의 모습은 당대의 왕권과 외국인의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일관되고 있다. 홈즈는 사건을 의뢰해오는 왕, 귀족 등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들의 곤란해 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거나 피해자로 등장시킴으로써 해당되지 않는 계층에게 통쾌함을 선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마당극과 유사한 효과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돈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를 경계[38]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인간애를 자극하는 요소들을 그려내기도 한다.

37) 김용언, 「군중 속의 개인 : 탐정, 범죄 소설, 모더니티」,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55쪽. 재인용.

02□□□_□□□□□□15□ 13. 8. 13. □□ 4:23 Page 55

이처럼 『셜록 홈즈』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작품은 아니다. 아서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를 통해 "의학과 과학 기술의 진보는 물론 그 특성을 가치관과 문학적으로 분명하게 구현하"[39]고 있다. 하지만 원작에서 그려낸 시대상과 사회적인 문제들은 『셜록』에서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 『셜록』은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사건을 통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한 편 다양한 요소들을 작품 속에 삽입하여 흥미를 이끌어 낸다. 하지만 현재까지 출간된 작품을 살펴보았을 때 당대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담아내거나,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삼는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조차 무시하거나 간소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원작과 동일하게 자본주의에 대해 거론한 부분 역시도 왓슨의 경마와 결혼문제를 연관시켜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캐릭터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게 한다.

만화가 소설처럼 진지하게 시대상을 반영하고 각종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몇몇 리얼리즘 만화들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특히 순정만화라는 장르 안에서 이를 진행시키는 것은 더욱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은 두 매체 모두가 갖는 특성이다. 때문에 만화에 이르러 『셜록 홈즈』의 문학성이 실추되는 모습은 결코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없다. 또한 원작을 대하는 보다 진지한 태도와 시선이 요구된다.

5. 결론

『셜록』은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인 『셜록 홈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38) 관련 장면은 원작과 만화 모두에 표현되어 있다. 「귀족 독신남」에는 귀족의 사건의뢰에 따른 보상에 대한 언질이 나오는데 홈즈는 보수나 의뢰인의 신분보다 사건이 얼마나 재미있는가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일축한다.

39) 김용언, 앞의 글, 32~33쪽.

02□□□_□□□□□□15□ 13. 8. 13. □□ 4:23 Page 56

그만큼 원작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릴 확률이 높은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다시 표현한다는 것은 인지도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별다른 인물이나 상황설명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원작에 익숙한 독자들은 만화를 대할 때조차 원작에 입각해 상상하고 비교하게 된다는 단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화는 다양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똑같은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할 수도 있다. 때문에 왜곡 또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원작이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생략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이다. 『셜록』에 등장하는 홈즈와 왓슨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사건설명의 경우에 있어서도 심각한 부분이 강조되지 않거나 거론만 되고 넘어가는 상황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때 원작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만화의 '강조' 기능인 특정부분을 확대해 보여주는 장면구성을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작품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작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정해진 원칙이나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해석의 결과는 원작이 있기에 잣대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원작은 어떤 식으로든 재해석을 가한 작품의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련한 평가 또한 제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 이는 비단 만화 『셜록』이 소설 『셜록 홈즈』를 원작으로 삼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느 장르이던지 원작이 존재할 경우에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드라마나 영화가 비교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상이 소설화 되었을 경우 각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먼저 선을 보인 작품은 대중에게 일정한 이미지로 고정되게 된다. 때문에 이후에 각색에 임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셜록 홈즈』는 출간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만큼 고정된 이미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은 물론 연구자

02□□□_□□□□□□15□ 13. 8. 13. □□ 4:23 Page 57

들에 의해서도 쉽게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소설과 만화는 엄연히 매체의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재해석을 하기 전에 각 매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석이 가해졌을 때, 원작 훼손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작품마다 주제와 특징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신중한 표현은 당연히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후의 재해석은 매체의 특성을 염두하고 표현될 매체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소설『셜록 홈즈』와 권교정의 만화『셜록』을 대상으로 몇 가지 특성을 규정짓고 변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양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이르지 못했음은 물론 각 매체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양상과의 비교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로 든 작품에 한해 진행된 연구의 미흡함과 관련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셜록』은 논란의 여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는 원작과 매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해석이 가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색에 임할 때 원작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주제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만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지어 작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소설과 만화의 매체의 차를 아는 것은 각 매체간의 장단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셜록』은 아직 완결된 작품이 아니고, 그려지지 않은 원작 또한 무수히 많다. 때문에 여러 단점들을 수정하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여지 역시 가지고 있다. 연재가 재개된 후 보다 나은 모습을 통해 홈즈의 팬들까지도『셜록』의 팬이자 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02□□□_□□□□□□15□ 13. 8. 13. □□ 4:23 Page 58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권교정, 『셜록』, 학산문화사, 2011.

아서 코난 도일, 「귀족 독신남」, 『셜록홈즈의 모험』, 황금가지, 2002.

_____, 「보헤미아 왕실 스캔들」, 위의 책.

_____, 『네 사람의 서명』, 황금가지, 2002.

_____, 『주홍색 연구』, 황금가지, 2002.

2. 참고자료

Asako Shiomi, 『죄와 벌』, 북박스, 2004.

곽선영, 「여성장르로서의 순정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5호, 2001.

김용언, 「군중 속의 개인 : 탐정, 범죄 소설, 모더니티」,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혜주, 「한국 순정만화 분석」, 《현대미술사연구》, 제24집, 현대미술사학회, 2008.

노시훈, 「문학작품의 만화 각색을 통해서 본 문학과 만화의 상호매체성」, 《프랑스문화예술연구》, 프랑스문화예술학회, 제29집, 2009.8.

문민기, 「동 · 서양 영상콘텐츠에 적용된 패러디 비교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7.12.

박석환, 「소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화의 득과 실」,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제16호, 2006,12.

아서 코난 도일, 레슬리 S. 클링거 주석, 『주석 달린 셜록 홈즈 Ⅰ』, 북폴리오, 2006.

이수진, 「소설에서 만화로 : 프랑스에 소개된 『짜장면』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한국프랑스학회, 제63집, 2008.8.

이찬후, 「만화표현의 영상적 요소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보영, 「한국 여성만화의 발전과제 고찰」,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정승화, 「순정만화의 젠더 전복 모티브에 나타난 엔드로지니 환상과 젠더화의 불만」,

02□□□_□□□□□□15□ 13. 8. 13. □□ 4:23 Page 59

《페미니즘연구》, 제8권 1호, 2008.

조희권, 「소설의 만화 전환 시 나타나는 서사 변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제17호, 2007.6.

지용진, 「셜록홈즈 : 그림자 게임 셜록홈즈는 액션이다」, 무비위크, 2011.08.01.

02□□□_□□□□□□15□ 13. 8. 13. □□ 4:23 Page 60

Abstract

An Actual Study on Transform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edia

—focusing on analysis of Sherlock Holmes Novels and Sherlock Comics

Kim, Mi Na

Sherlock comic books are originated from Sherlock Holmes novels, which are very well-known.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considering the original damaged. It would be an advantage for the reputation of the original which is well known to express in different way. This allows people to easily understand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 of characters or stories of the adapted work. On the other hand, the readers who are used to the original may have a prejudice to the adapted comics and be interrupted to appreciate them by imagining and comparing the original and comics.

Comics has its own diverse characteristics. It could express one situation in a exaggerated way, or assail a task to omit unwanted parts. Because of that, however, distortion can happen at the same time. The essential parts of the original can be omitted or distorted. This is appli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olmes and Watson in Sherlock Comics. Additionally, in the case of events demonstration, serious parts are unlikely to be emphasized or simply mentioned and passed through. If the scene configuration that magnifies and shows specific

02□□□_□□□□□□15□ 13. 8. 13. □□ 4:23 Page 61

parts of the comics on the parts that are emphasized in the original were utilized, more quality of work would be acquired.

There is no specific rule or way to interpret the original work. But without the original, It is not possible to evaluate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It is essential to compare between the original and other adapted works and there is no limit in related evaluation of them. This is not because the Sherlock comics are originated from Sherlock Holmes novels. Any kind of genres cannot help being compared with the original. A drama or film that is originated from a comics can be the subjects of comparison, or a novel which is originated from a film would have trouble in adaptation. Because every works has an image that fixed from the original work, it is common that the adapted works are controversial. In particular, Sherlock Holmes novel series have been praised for over 10 decades since they were published. This indicates a specific image has been so strongly fixed that researchers as well as the public tend to easily think of it while appreciating other adapted versions.

Sherlock may be a controversial point. The reason seems to be re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and media without enough understanding of them. When adapting the original work, it is needed to reflect aspects of the subject that are regarded as top priority in the original and whether the parts are possible to happen only in comics or not. Knowing the difference between novel and comics can become a basic way to effectively accept both the benefit and disadvantage of different media.

02□□□_□□□□□□15□ 13. 8. 13. □□ 4:23 Page 62

주제어: 셜록 홈즈(Sherlock Holmes), 만화(Comics), 소설(Novels), 원작(The original), 변용(Transformation), 매체(Media)

논문 접수일 2013. 05. 03.
논문 심사일 2013. 05. 24.
게재 확정일 2013. 06. 14.